회색빛 도화지에 녹색의 물감을 칠하다!

인간, 도시, 자연이 어울려 풍요로운 '목포 십자형 도시숲'

목포시가 조성한 녹색 네트워크

최근 기후변화, 저탄소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과밀화된 도시는 아스팔트와 건물 벽에 둘러싸여 주변지역의 기온보다 더 높아지는 열섬화현상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으며 각종 개발에 의해 도심 녹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목포시는 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생태적으로 그물처럼 연결된 녹색네트워크, 즉 생명이 깃들고 살아 숨 쉬는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20년 전, 목포에는 하당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열십자로 가르는 보행자도로에 고압블럭 포장과 벤치 등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건축폐기물 투기와 쓰레기 방치 등으로 도시미관에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너른 광장에는 큰 나무가 부족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여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다. 또한 중심상업지구와 주거지역 주변에는 조형수목과 이벤트 시설물,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쇼핑과 더불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생태숲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반응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4년 동안 보행자 전용도로 3.2㎞, 6.7㏊에 약 8만주의 수목과 30여종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테마가 있는 숲을 조성, 경관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포 십자형 도시숲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녹색생활환경 및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상가입주자들이 보행자전용도로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수목 등에 의해 상가간판이 가려지고 보행권이 방해되어 상권의 단절을 가져오며 공사차량, 장비소음 등으로 인해 상가 이용이 저조해져 매출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설계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열어 "도시숲 사업은 상가 번영에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열악한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도시녹화 행정을 실천하였다. 더불어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숲 조성 및 발전의 방향' 을 모색하고 범시민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조형 소나무 외 12종 5,600주의 수목을 식재하였다. 또한 도시숲 구간의 5개 주민센터와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청결활동을 펼쳤으며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폭넓은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현재 이곳에는 숲의 거리, 장미의 거리, 사랑의 광장, 체육공원 등이 있다. 과거 삭막했던 도시는 도시숲을 통해 생명력을 얻어 녹색도시로 재탄생하였으며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상가번영회가 활성화되어 자발적으로 시설물 관리와 환경정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각종 문화공연, 이벤트

목포 십자형 도시숲으로의 변화된 모습

행사,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만남과 쇼핑의 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중심상업지구의 중앙에 위치한 바닥분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주변에 위치한 토스트 · 주스 · 커피전문점은 매출이 증가했으며 상가 임대료가 비싸져 바닥분수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쇼핑과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걷고 싶은 이상적인 보행환경이 이용자를 자연스럽게 모이게 함으로써 주변상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주변부의 건물신축이 잇따르고 있어 도심의 활기를 느낄 수 있다.

사랑의 광장

이런 성과로 인해 2009년 문화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서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숲길' 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산림청 주관 지자체 녹색도시(Green-city)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노후시설물과 쓰레기로 방치된 부지를 활용해 도시숲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에서 사색을 하고 벤치와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출 · 퇴근시간에도 도보로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목포십자형 도시숲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자연체험학습의 장이며 관광자원이다. 앞으로

아름다운 숲길

도 목포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도시숲이 '사람이 함께 숨쉬는 명품 도시숲' 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진호

목포시 경관사업과장
jhkim3@korea.kr